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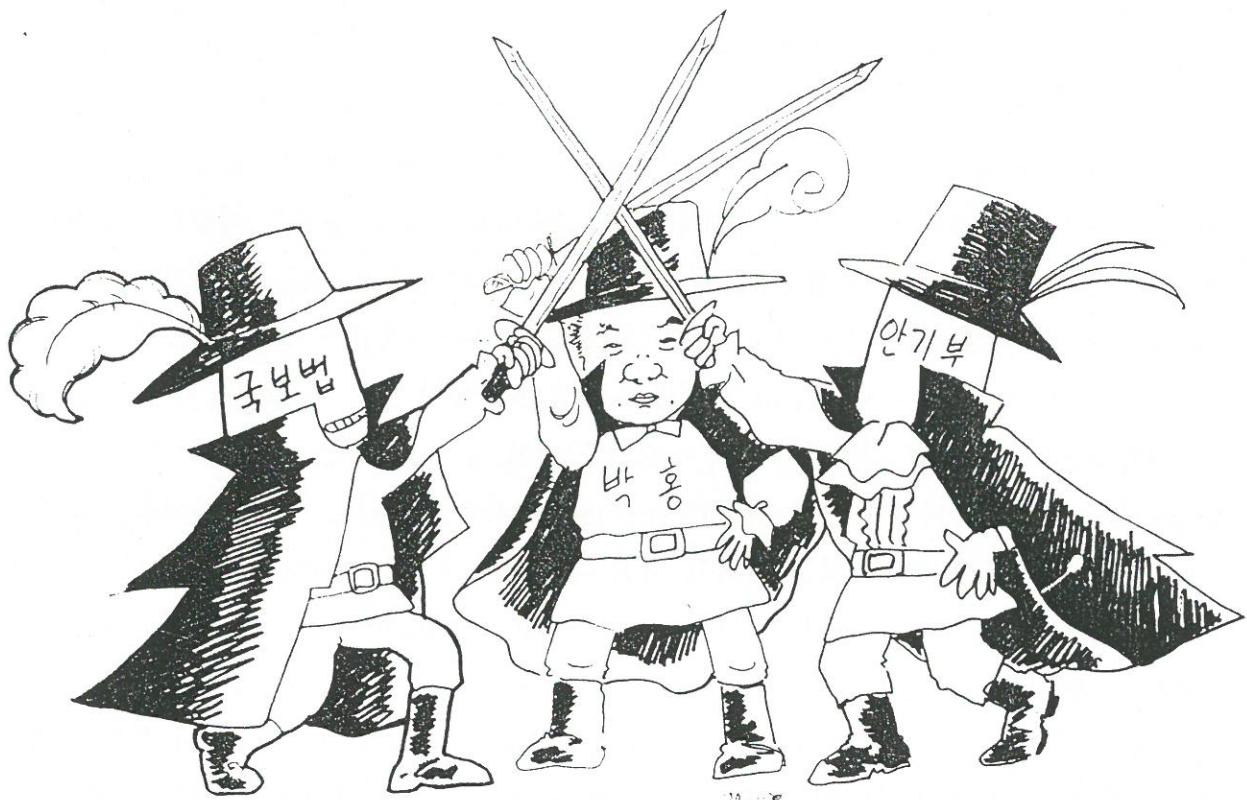
사 람 사 랑

회원통신 제30호(97/6/15)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또 다시 불어오는 바람!



무적 삼총사 - all for one, one for all

<만화 자원봉사자 정경아씨가 그린 작품-6월 7일부터 10일까지 '민주주의박람회' 전시>

오/랜/만/입/니/다

박찬운(운영위원, 미국서 유학중)

김수경씨

오랜만입니다. 미국의 박찬운변호사입니다. 세월은 살같이 빨라 벌써 한국을 떠난 지 1년이 되었군요. 사랑방의 소식은 매주 보내주시는 하루소식을 통하여 잘보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정성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은 사랑방의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아주 대단한 업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중에서 한국 인권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 사이트를 권하고 있습니다.

제 근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이곳 버클리에서 머물면서 올 여름의 로스쿨 입학에 대해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역사와 정치를 공부하였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생각처럼 공부가 되지 않아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후회도 많이 하였지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준 것 같습니다. 로스쿨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곳에서의 공부도 의외의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이곳의 비지팅 스칼라가 주최하는 모임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곳의 교포신문(한국일보)에 이틀간에 걸쳐 저의 글이 크게 실린 일이 있지요. 저는 이제 다음달 20일경 노틀담 로스쿨이 있는 인디애나 사우스벤드로 떠납니다. 약 2,500마일의 대장정입니다. 비행기로 가지 않고 차로 한 10일에 걸쳐 가볼 생각입니다. 이 기회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제가 노틀담을 선택한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이것은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주셔도 됩니다). 첫째는 이 학교의 로스쿨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는 미국에서 이 학교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 센터에서는 세계 각국의 법률가들을 불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석박사 학위를 주고 있어 저와 같이 학위를 목표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매력이 있는 곳이지요. 둘째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학교의 인권센터에 들어가면 학비와 생활비가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립 로스쿨에서 1년간 공부하려면 적어도 3-4만불은 준비해야 하는데 이 센터는 이것을 입학생에게 제공(fellowship의 형태로)합니다. 셋째 이 센터에서 1년에 선발하는 인원은 약 10여명에 불과하

여 그 연구분위기가 매우 정선되었다는 점입니다(다른 말로 바꾸면 공부하는 것 terrible!). 이것도 저에게는 큰 매력 중의 하나입니다. 한 번 세계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여하튼 저는 운이 좋아(아마도 사랑방의 운영위원 경력이 높이 평가되었을지 모릅니다. 얼마전 그곳의 디렉터를 만나 사랑방 이야기를 하였지요. “아마도 사랑방은 세계 최초로 1일 팩스신문을 만들어내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웹서비스를 하고 있는 명실공히 한국의 최고의 인권단체이다. 나는 그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일하였다” 조금은 과장일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무척이나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척이나 가고 싶었던 학교의 프로그램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7월부터 공부에 들어가 내년 여름에 프로그램이 끝나면 약 6개월의 연수(아마도 유럽이 될 것임)을 거친 후 내년 겨울 무렵 귀국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획은 언제나 바뀌어지는 것이므로 운명의 신이 저를 어디로 어떻게 안내할지 지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지금의 상황도 불과 2년전에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였으니까요).

(중략)

서선생님은 독일에서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안부 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천리안에 메일을 올려놓으시라고 하십시오. 다른 운영위원, 그리고 사랑방의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도 저의 안부를 전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해보겠다고 헌신하는 수경씨를 비롯한 사랑방의 전 가족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의 가호가 항상 같이 하시길 멀리서 뵙니다. 내내 안녕히...

1997. 5. 23. 버클리에서 박찬운

* 이 편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박찬운 변호사님이 천리안을 통해 미국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인권하루소식> 편집장인 김수경씨 앞으로 보내온 것이지만, 사랑방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박변호사님의 소식도 전할 겸 게재합니다. 박변호사님께 소식 전하고 싶은 분은 국내에서 통신으로 편지 보내는 방법 그대로 천리안 kya62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 / 업 / 보 / 고

(97년 5월 셋째주부터 6월 둘째주까지)

‘민주주의박람회’서 사랑방 홍보 6월항쟁 기념 10주년 주간 중

6월항쟁 10주년 기념주간 동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된 민주주의박람회에 사랑방이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작업에 나섰습니다. ‘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전국연합 등의 재야단체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 등 20개 단체가 각자의 부스를 설치,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독특하게 홍보하는 장이었습니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부스 안에 사랑방 사업을 각 실별로 설명하였고, 문민정부의 인권문제를 <인권하루소식> 10대 뉴스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불심검문이 불법이라는 것, 인권영화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등을 깔끔한 만화와 그림,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스 앞에 설치된 판매대에서는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등을 내놓았고, 컴퓨터 통신으로 <인권하루소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권영화를 상영하고, 6월 7일(토)에는 법률무료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이 박람회의 성과는 처음으로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벌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홍보작업을 했던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대학로라는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장소상의 분위기도 그렇고, 6.10 행사가 침체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점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대중적인 홍보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들인 공만큼 우리의 내용을 관람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의 전시물, 관람객의 시선을 붙들 획기적인 방식의 의사전단 수단을 만들지 못했던 점은 반성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는 이후 홍보활동을 계획하는데 좋은 경험을 제공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달말 통신 자료검색 가능 데이터베이스 작업, 순항

이달말이면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인권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인권정보자료실이 그간 공을 들여온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말로 데이터 입력을 완료한 정보자료실은 원활한 검색을 위한 프로그램 짜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게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곧장 하이텔 참세상을 통해 컴퓨터 통신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참세상측은 우리의 준비가 완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으로 이대로라면 6월말이면 정말 컴퓨터 통신에서 사랑방 자료실에 있는 모든 인권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6월말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는 목록과 자료에 대한 약간의 설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인권자료를 접하기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갈증 속에 샘물과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자료실은 이후 정보연대 SING의 도움으로 인터넷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인권하루소식> 지령 900호 돌파

<인권하루소식>이 지난 6월 10일로 지령 900호를 돌파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지령 900호를 맞아 ‘안기부와 인권’이란 주제의 기획을 준비했으나, 임시국회가 밀리는 상황에서 게재는 늦추기로 했습니다. 안기부 시리즈는 안기부의 역사

를 살펴보면서 안기부가 인권을 침해한 사실들을 정리, 안기부가 국민을 적으로 삼는 정보기관임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기획됩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은 합본 8호 작업에 들어가 매번 합본호 발행이 늦어진 전철을 밟지 않고 이번에는 기필코 7월중에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대표 보름간 독일, 영국 방문 강연 활동등 호평 받아

서준식 대표가 지난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약 보름동안 차병직 자문위원(변호사)과 함께 독일과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서대표는 독일 5월민중제 행사위원회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하였는데, 독일의 동포들과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한국의 인권 현실에 대해 강연해 매우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차병직 자문위원도 동포들의 법률적인 질문에 응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5월 민중제는 5.18주간에 독일의 동포들이 5.18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펼치는 행사로 지금까지는 주로 5.18 관계자들을 주로 초청하여 왔습니다.

한편, 서대표와 차자문위원은 독일에서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 등을 '최고의' 가이드로부터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나 수용소 실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주로 영국 엠네스티 관계자들의 도움과 주선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교육으로 바빠지는 인권교육실

인권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인권교육실장이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류은숙 교육실장은 지난 1일 청년네트워크 미래 회원들 3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교육을 했고, 오는 16, 17일에는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이번 영등포여상에서 진행되는 17,8일 인권교육에는 3백명씩 4회에 걸쳐 총 1,200명

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번 교육은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통합 고등학교(인문계와 실업계 통합, 한가람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교육실은 이번 여름방학에 사회복지 전공실습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6개 학교의 10여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법대 학생들의 사회단체연수학교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한편, 류은숙 교육실장은 아시아재단이 주최하는 스리랑카 인권교육 워크샵에 참가합니다. 이 워크샵은 6월 23일부터 4일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리고, 아시아 지역의 인권교육 담당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교육실장은 3시간에 걸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 UNDP에서 추진하는 AP2000 사업(아시아-태평양 지역 2천년대 계획)의 일환으로 필리핀의 지역공동체 운동단체인 CO-TRAIN(Community Organization and Research Advocacy Institute) 관계자가 사랑방을 방문,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갔습니다.

□ 영화제 사무국 상근자로 실무자 김정아씨가 6월부터 출근을 시작,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 인권협은 지난 4일 두달만에 집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대선기획 사업과 관련하여 각 단체 1인씩으로 팀을 구성 운영하고, 국민인권기구 사업에 대해 민주법연과 사랑방이 공동 계획안을 제출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우토로 마을 서명운동을 각 단체에서 조직기로 하였습니다.

□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지난 5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3차 학술회의는 9월에 열리고, 이때에는 구체적인 명예회복방안을 놓고 의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27일 성공회 성당에서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 및 제2회 인권피해 증언의 장을 개최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람회·오송회·한울회 사건에 대해서 집중 조명합니다.

<함께 읽는 자료(전문)>

6월 민주항쟁 10주년 국민선언

-21세기 새로운 민족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의 다짐-

6월 항쟁 10돌, 우리는 그날의 성과를 제대로 가꾸어내지 못한 채 퇴행의 기류마저 감도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다짐한다.

1987년 6월 전국에 메아리친 국민의 뜨거운 함성은 마침내 군부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우리 역사의 흐름을 민주화로 돌려놓았다. 그날 민중을 억압하여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고,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을 가로막았던 군부독재정권은 민주와 통일을 향한 국민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6월 민주항쟁은 떨리는 일제하 독립운동에서부터 4.19 혁명, 유신하의 민주화운동, 부마민중항쟁, 5.18 광주민중항쟁, 제5공화국 하의 민족민주운동의 전통을 잇는 전국민적인 저항운동이었으며, 국민은 결코 부정의 하고 반민주적인 권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방에 과시한 역사적 항쟁이었다. 우리는 그날의 승리를 통해 정의와 국민의 힘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민족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 우리는 그날 가졌던 미래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미완인 채로 남아 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투쟁의 성과에 편승하는 한편, 수구보수세력의 재편을 통해 출범한 현 정부는 '문민정부'임을 자처하지만 지역적 파당성과 신보수주의에 인주하여 더 이상 민주화를 진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특히 반세기 넘어 지속되고 있는 분단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통일을 일구어 내는데 무력함을 입증하고 있다. 그나마 사회의 민주적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퇴행을 용납하지 않는 국민 대중의 힘이다.

정치·사회의 개방적 변화가 기본 추세로 자리잡았지만 사회의 일각에는 여전히 민주세력과 민중들을 억압하는 독재의 사슬이 청산되지 않았으며, 과거와 다름없는 부패와 부정이 지속되고 있다. 감옥에는 오늘도 많은 양심수들이 갇혀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나 삶의 질의 향상 역시 아직도 미래의 과제로 남아있다. 낮은 사회복지

수준, 불안정한 노동권, 담보 상태에 있는 여성의 권리, 과중한 사교육비, 빈발하는 산업재해, 각종 대형 사고는 국가의 기초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실례이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흐름 또한 민주와 통일, 민중의 안정된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도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냉전 체제가 종식된 이후 세계는 다시금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자본의 세계화는 각 나라에서 실업, 복지삭감, 노동조건 악화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남과 북의 불균등 발전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잔존하는 국제 질서 상의 비민주성과 제국주의적 행태는 새로운 세기를 맞는 인류의 앞날에 심각한 위협 요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낡은 성장주의가 배태한 지구적 환경위기의 극복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는 여전히 냉전의 구름이 걷히지 않은 채 주변국의 군비는 오히려 증강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개입은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의 개방과 성장을 추진하는 중국은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거두려 하지 않는다.

새로운 세기를 앞둔 지금 이같은 내외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 50여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며, 대외적 의존성과 대내적 비민주성의 빌미가 되어온 분단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와 국가를 건설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깊이 인식케 한다.

우리가 건설해야 할 국가는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자주통일 국가이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통일국가는 경쟁력 있는 경제질서를 바탕으로 하되, 빈곤과 불평등,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복지, 환경 등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거, 정당, 의회 등으로 대표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행정, 사법 과정에의 참여, 작업장에서 경영참여와 공동결정, 지역 차원에서의 진정한 자치의 실현 등을 통해 국민대중이 정치,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구실 할 수 있는 질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가로막는 위협 요소인 냉전적인 지배 질서와 그로말미암아 형성된 법, 규범, 사회 관행은 가장 우선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

국가운영에서의 도덕적 정당성의 회복, 지역주의의 폐해청산, 사회경제적인 민주화는 우리가 새로운 문명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장차 더불어 살아야 할 민족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통일과정의 대등한 주체로 인정하면서 대화의 문을 넓혀 나가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냉전적 대치상태를 지속시키는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상호 군축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통일 민족국가의 형성이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고 자주적이면서도 약자에게 포용적이며 인류 공통의 과제에 함께 참여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날로 증대되고 있는 재벌의 경제·사회적 지배력을 축소시키고, 정경유착 구조를 청산하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 역시 우리의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토지소유 등을 통한 불로소득은 환수되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고도성장과정에서 확대된 행정권력의 과도한 간섭은 축소되어야 하지만, 공공의 복리를 위한 감독과 감시는 더욱 엄격해져야 하며, 정책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사회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구조는 과감히 혁신되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참신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당, 선거, 정치자금 관련 법규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 여성의 정치적 진출은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우선적인 과제이다.

1987년 이후 언론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즉 언론의 공공적 기능의 회복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복지는 더욱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여 교육비가 모든 생활인의 짐이 되는 교육 현실은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당면해서 정치관계법과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적인 개정, 비민주적인 노동관계법의 재정비, 사회복지제도

확충, 인권침해의 관행과 제도의 혁파와 쇄신, 부패한 교육계의 정화와 교육개혁, 공영언론의 중립화와 언론자본의 적폐 해소를 통한 시민적 공론영역의 확충, 재벌경제의 혁파와 경제소유관계의 민주화, 안기부 수사권의 제한과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전제조건이다.

이같은 과제들을 눈앞에 둔 우리는 다시한번 6월 민주항쟁이 단지 민주화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오늘 민주발전의 지체로 인해 군사독재의 향수가 되살아나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세력들의 희생과 노고가 거리투쟁으로 매도되는 저간의 분위기에 우려를 표하면서, 다시금 6월 항쟁, 더 거슬러 올라가 광주민중항쟁, 유신하의 민주화운동과 4.19혁명의 집단적 기억과 그 역사적 성과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한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오늘 국민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는 지난 시절 민주화에 몸바쳐 온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과 국민의 노력에 바탕을 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은 지난 시절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으며,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많은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깨어있는 모든 국민은 6월 항쟁의 진정한 계승자이다. 원칙과 소신, 도덕성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수많은 민주시민과 온몸을 바쳐 민주화를 위해 일해온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김영삼 정권이 오늘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이 표방했던 민주화를 더욱 더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민주화를 가일층 심화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열린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세력이 다시금 민주화의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고 장차 통일의 주체, 21세기 민주사회의 주체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들이 모든 영역에서 사회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멀다. 21세기 통일 민족민주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그 동안의 분열, 오해, 갈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대열에 우리 모두 다시금 하나되어 앞장서 가자.

1997년 6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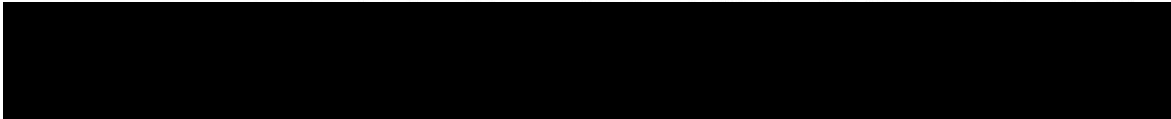
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97년 5월 재정보고
(97년 5월 16일 - 6월 15일)

전기이월: -570,807원

수 입		지 출	
회비	1,887,900	활동비	3,725,000
구독료	4,425,468	사업비	478,020
사업수익	885,930	발송비	975,480
은행이자	2,751	사무비품	83,170
기타수익	2,048,640	사무실유지	733,310
		자료구입	125,000
		식대(야근)	268,400
		전화요금	981,270
		사무기기	474,000
		복사비	364,200
		기타	53,265
수입총액:	9,250,689원	지출총액:	8,261,115원
최종결산:	296,468원		

<5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 **비상!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밀린 회비 좀 청산해 주십시오.**

회비가 너무 안 들어옵니다. 아래의 구좌로 밀린 회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월말에 맞춰서 사무국에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좌 안내>



예금주: 서준식

◆ **썸통 더위가 벌써 시작입니다. 선풍기 좀 마련해 주십시오. 사무실은 벌써 썸통입니다.**